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10 월호



말씀 · 독서 · 신앙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한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 한 마디가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는 일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도는 얼마나 성경을 잘 배워 알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개신교가 카톨릭과는 달리, 말씀 우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왔으며,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회가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장로교 가운데서도 몇몇 교단만이 신학적으로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론이 증거하고 있는 바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로서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등화가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사회 각층에서 독서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조국을 향하여 의식개혁, 질서와 예절 준수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힘쓰고 있다. 정말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후진성의 탈피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달라졌는가? 각종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86아시안게임과 88세계올림픽이라는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가 대단해졌다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외형적·물질적 면으로는 우리가 선진의 수준을 상당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으나 내적·질적인 면과 장래적 안목으로 볼 때는 부실한 면이 많다. 특히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각종 오락실과 체육시설 그리고 의상실과 유흥장은 증가하고 있으나 책방은 시내 중심가의 큰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아간다는 소식들이다.

좀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다. 서점·도서관·연구실들이 행락시설을 대신하여 더 많아져야 한다.

차제에 신앙인들의 안이한 경향도 지적하고 싶다. 곧 성경도 잘 읽지 않고 신앙에 유익한 도서도 잘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껏해야 부흥회나 신유기적 집회를 따라다니는 열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 신앙인의 수준 향상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묵상에 있다. 시편 저자와 같이 “복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와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사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신자가 많아져야 한다. 성경을 펴들고 읽기가 어렵거나 눈이 밝지 못하면 요즈음 많이 보급되는 「듣는 성경」 즉, 카세트 테이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성경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서적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신앙인들의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양적으로만 크고 내용은 부실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고 충실한 신앙인과 교회로 성장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 중의 책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도서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격려와 감화를 받아야 한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중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1권 제9호 통권114호

1983년 10월호 차례

- 권두언/말씀·독서·신앙.....주 간 · 2
- 이달의 말씀/교회의 부흥은.....당회장 · 4

□ 종교개혁 기념특집

- 칼빈주의란 무엇인가.....정성구 · 6
-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백락.....김원남 · 10
- 개혁주의 신앙노선이란.....조영길 · 13
- 우리교회의 신앙의 발자취.....이두란 · 17
- 한국 장로교회의 내일을 위하여.....김차생 · 20

- 이사야 감해⑫/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결과.....김창민 · 24
- 찬송가 감상/예수 나를 오라하네.....김창근 · 27
- 신앙일화/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느냐.....안석렬 · 23
- 지상노고/효과적인 성경공부 방법.....이승수 · 28
- 이달의 시/풍요론 계절의 감사.....오은영 · 뒷표지
- 그루터기/어린 인격에도.....19
- 선교사·선교지 소식.....33
- 대접을.....35
- 교회소식.....35
- 바로 잡습니다.....34
- 10월의 행사.....38
- 이달의 교우동정.....37
- 편집후기.....38

□ 표지해설

(상) 1884년 한국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솔내(松川)에 세워짐. 이는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요람지이다.

(하) 평양장로회 신학교 제11회 (1007년 7월) 졸업생. 방 기창, 서 경조, 양 정백, 한 석진, 이 기풍, 길 선주, 송 인서- 이들은 교회 강당에서의 첫 설교자이며 첫 목사들이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딤후 2:14)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디도서 2:14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의 대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위하여 피를 쏟아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생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한 죄값으로 악마의 종과 지옥의 죄수가 되어 날마다 근심과 죽음의 공포의 집을 걸머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발걸음입니다.

내가 알고 범한 죄와 모르고 범한 죄, 온갖 더럽고 흉악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애타는 인생을 구원하여 악마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 문이 열리어 영생복락을 누리나니 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2.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면 깨끗한 줄 믿으나, 사람의 마음은 죄악에 때문고 그 입술은 거짓말, 저주, 악독으로 더러운 냄새를 피우고 그 행동은 하나님께는 욕이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후손에게 저주를 끼치면서도 잘났다고 교만하고 껌덕거리니 암만 봐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 더러워진 인생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마음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깨끗한 인격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범한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할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피로 씻어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3.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① 아랫사람으로서 웃사람에게 대한 선한 일이 있습니다.

웃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줄 알고, 웃사람의 명령에 겸손히 복종할 줄 알고, 웃사람의 자랑감이 되는 것이 아랫사람의 선한 일입니다.

② 웃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향하여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업수이 여겨 천대하고 아랫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용하려고만 들지 말고,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지도해 주면서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웃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을 키워주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③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선이 있습니다.

독생자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못하여 인간의 목적을 상실하면 시체요 산송장입니다. 선한 일 못하는 몸뚱어리가 무슨 가치가 있으며, 선한 일 못하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선한 일 못하는 지식, 권세, 건강, 예쁜 얼굴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쓰레기통에 던질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건강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산도 선한 일을 위하여 필요하고 지식, 권세, 생명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2)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선한 일도 그 하는 자세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열심이란 말은 불붙는 마음이란 뜻이니 교만, 욕심, 탄 생각은 다 태워버리고 오직 한가지 목표를 향해 불붙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이라는 말은 시간과 경제와 명예와 몸과 생명까지 전부 바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한 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선한 일은 땀이 흘러야 이루어집니다.
- 선한 일은 눈물이 흘러져야 이루어집니다.
- 선한 일은 기쁨을 짜야 됩니다.
- 선한 일은 이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하는 각오가 있는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역만 죄인을 건져내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독생자를 희생하셔야만 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시는 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땀과 눈물과 기쁨과 피를 쏟아 놓으셨니 선한 일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충현교회 성도들이여 선한 일에 성공을 원하십니까? 선한 일에 말로만 하지 말고 땀과 눈물과 기쁨과 피까지 쏟을 정성과 노력으로 일을 하십시오.

웃사람의 자랑감이 되는 선한 일, 아랫사람을 복받는 길로 인도하고 키워주는 선한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일, 세계 선교를 하고 정전 건축을 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세계 공산정치 밑에서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한 일, 북쪽 하늘 아래 천오백만이 넘고, 만주 중국에 150만, 소련에 60만, 백여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족들이 복음을 받는 날을 달라고 기도하고, 북쪽하늘 밑에 돌아가 성전을 짓는 즐거운 때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과 정성을 쏟자는 말입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먼저 선한 일을 합시다. 선한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 합시다.

이같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늘나라 백성, 이 나라의 보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인 목사
(충현교회 당회장)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정 성구 박사

총신대학장

1. 하나의 포괄적인 사상체계로서 성경적인 사상체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칼빈주의란 말은 너무도 어렵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사람에 따라서 꼭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어떤 신학의 한 분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칼빈주의라고 할 때는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돌트(Dort) 총회에서 결정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연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여러 분야 중에 특히 교의신학(敎義神學)의 일부 분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칼빈주의를 한번도 포괄적 삶의 체계(The Life System)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교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위로 말하면 칼빈주의가 신학의 일부분이 아니고 칼빈주의 안에 신학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를 명사적(名詞的)으로만 보지 않고 형용사적(形容詞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칼빈주의가 아니고 칼빈주의적 신학이라 해야 논리적입니다.

신학도 학문이란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학문입니다. 참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신학을 할 수도 있

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신학이라고 모두가 생명력이 있는 신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신학도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흔히 신학을 분류하는대로 조직신학(組識神學)이니 주경신학(註經神學)이니 역사신학(歷史神學)이니 실천신학(實踐神學) 등 그 외에도 얼마든지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의 이름과 학파를 따라서 팔트의 신학이니, 톨리히의 신학이니, 부르너의 신학 등 해야될 수 없이 많습니다. 요사이의 상황과 주제를 따라서 신학의 명칭이 생겨난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소망의 신학이니, 해방의 신학, 흑인 신학, 황인 신학, 여성 해방의 신학 등등 정황의 신학(Contextual Theology)이 그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모든 신학운동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독단론(獨斷論)이라고 비평할 사람이 많겠지만 칼빈주의적 신학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장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주의는 신학적 사색이라기 보다 성경적 사상체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는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우주적인 성경적 사상체계입니다.

말하자면 칼빈주의는 바로 성경적인 사상체계인 만큼 흔히 생각하기 쉬운 칼빈 자신의 창작물이나 기타 개혁자들의 유산(遺産)이 아니라 성경적인 계시관인요, 성경적인 인생관인요, 성경적 우주관이며, 성경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우리는 칼빈주의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칼빈주의에서 깨달은 성경의 참된 진리를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敍贖)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敎主)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기에 나는 거기서 무관하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해야 할 장소이며 정복해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정복해 나가는 구체적인 걸음이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2. 하나님과 인간 자신과 세계를 바로 알게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체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체계가 있습니다. 가령 유물주의(唯物主義) 사상체계나 공산주의(共產主義) 사상체계는 물질이 그 사상의 출발이며 과정이며 결론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사상체계는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성경의 사상체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 사상은 인본주의(人本主義) 사상이나 유물주의 사상과는 첫 걸음부터 다른 사상 구조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중심한 사상체계를 가질 때만이 역사와 인생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자기 죄악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의 체계를 가져야 진리를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나 합리주의나 유물주의 사상 체계에서 나온 신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화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체계인 칼빈주의적 신학과 칼빈주의 철학과 칼빈주의적 예술이나 문화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늘과 땅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사람을 냉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로 알고 세계를 바로 알므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처럼 칼빈주의란 매우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속이 좁은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비평은 잘못된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가

슴은 밖으로 크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땅 위에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주권(主權)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칼빈주의는 신학 뿐 아니고 도덕적 영역, 진리, 과학, 예술,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영역주권(領域主權・Sovereigniteit in Eigen Kring)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가 말한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기에 나는 거기서 무관하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해야 할 장소이며, 정복해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참된 칼빈주의 신앙이 그저 옛날의 습관을 보수(保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虛無主義)나 신비주의(神祕主義)와 같은 것 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만유의 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아무 것도 헛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적극적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3. 인간의 사상과 구체적 삶을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살아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Coram Deo)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문제는 그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그의 사상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 그것은 곧 교만의 삶이며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의 신학의 틀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의 「기독교 강요」에 피력했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장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교회다운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만이 바른 양심을 갖게 되고 겸손하게 되며, 바른 사회와 바른 문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문화나 사회는 부패한 문화와 부패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종교운동도 결국 부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요 인간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절 25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하나님 대신에 과학을, 하나님 대신에 인간 이성을 대치시킨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배제한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국 칼빈주의 사상은 본래의 창조질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카이퍼는 말하기를 “나는 칼빈주의에서 평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주의 사상이 오늘의 우리 시대를 구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4.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원론적 사상을 거부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너무나 좁게 생각해서 제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느 공동체(공동體)나 어느 지역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장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실한 성도라면 우리가 일하는 작업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사실 많은 보수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중에는 성수주일(聖守主日)과 십일조를 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The totality of life)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고 했습니다. 칼빈주의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서든지 불꽃같은 여호와 의 눈길 앞에서 진실되이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송하는 구체적인 삶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아직도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사상 특히 한국사상에 뿌리 깊이 박힌 이원론적 사상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 선교 백주년을 눈 앞에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뛰어 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찌기 칼빈주의 철학자인 화란의 뎅크링크(J. D. Dengerink) 박사의 말과 같이 오늘날 많은 복음적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들이 가진 성경적 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포괄적인 것과 생의 전체 분야에 관련을 맺는 성경적인 복음과 세계의 주와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의 통치권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개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사역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말과 도피주의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과제는 이러한 이교적(異敎的) 이원론적인 사상을 버리고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간섭하지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교리는
교회가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하고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인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5. 인간의 전통이나 경험을 굴복시 키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칼빈주의 사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성경관입니다. 칼빈주의는 물론 다른 말로는
성경주의라고 할만합니다. 사실상 모든 신학의 갈
림점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성
경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도 언제나 우리는 바
른 성경관을 붙들어야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이 말한대로 참된 신앙은 성경이 가라
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삶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기적
적인 소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기록
된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
다. 결국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꿈이나 경험이 표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서 칼빈은 이것을 한 마디로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고 한 것입니다. 카톨릭은 전통적인
권위를 앞세우지만 칼빈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그보
다 힘있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전
통, 아무리 명백한 경험이라도 성경의 권위 앞에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생각하기를, 성
경을 교회의 예속물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칼빈주의
는 생각하기를 성경 없이는 교회도 없다고 확신합
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의 교리는 교회가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음이 틀림
없다”고 하고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
인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성경으로
인정한다고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자증적 계시(自證的 啓示)입니다. 그러므로 칼빈
주의는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없이 바른 신앙에 도달하
려는 사람은 칼빈이 주장한대로 일종의 「광신에 사

로 잡힌 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
주의는 성경에 대한 확실한 어떤 원칙과 교리를 붙
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령, 시편 119편을 보면 79절에서 104절까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
랑해야할 것을 가르쳐 주고, 105절에서 마지막 절
까지는 꿀송이 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즉, 전반부는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
에 대한 태도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책임과 소명(召命)을 강조합니다. 즉, 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환희와 구속(救贖)의 즐거움
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 줍니
다. 즉,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구
체적인 현장에서 어두운 길을 밝혀주며 우리를 인
도합니다.

칼빈주의자는 말씀을 갖고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깊은 진
리를 깨달은 것도 한세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의 신학
과 신앙은 진부한 옛 교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 : 36)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 맥락



김 원남 목사 (심방위원장)

1. 한국장로교회의 시작

19세기 말경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던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이 종교적 감수성이 풍부함을 알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좋은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한국에 처음으로 주재선교사를 파송한 영예를 얻게 된 교회는 미합중국 북장로교회였다.

한국 땅에 최초로 입국한 주한 장로교 선교사는 1884년 9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한 선교의사 알렌(Horace Newton Allen)이었다.

이어서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로 입국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상주 선교사의 입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한국 장로교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의 시작이 실제로 있어서는 이보다 앞선다.

1876년 이 응찬(李應贊)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당시 만주에 있던 존 맥킨타이어(John Mac Intyre)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개신교인이 되었고 서 상운(徐相濤)이라는 사람은 의주(義州) 사람으로 만주 봉천에서 홍삼행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로스(John Ross) 목사를 만나게 되어 예수를 믿고 1879년 세례를 받았다.

서 상운은 로스 목사를 도와 성경을 우리 말로

번역하였고 후에 로스 목사의 권서인(勸書人)이 되어 만주를 거쳐 고향에 돌아와 전도를 하였다. 그는 그때 아직도 금지되어 있는 종교(기독교)를 고향에 가서 전하려 하니 불안과 위험이 있어 황해도 장연군 송천(속칭 솔내)에 이주한 후 전도하여 송천에 솔내교회를 세우니 최초로 국내에 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1887년 9월에는 서울 최초의 교회인 새문안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교회의 설립예배는 언더우드 목사의 사랑방에서 드렸는데 얼마 후에 교인이 50여명으로 늘어나 1894년에는 교회를 현재의 새문안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옮겼다.

이처럼 한국의 장로교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최초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서 이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는 것 외에 한국 개신교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일찍부터 성경이 우리 말로 번역되어 보급되었다는 것이다.

2. 외국선교회의 입국과 한국 장로교회의 수난

이처럼 한국 민족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진리 탐구에 대한 성품이 천부적으로 예민한 것을 알게된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부들은 앞을 다투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그들의 활동 결과 세계선교사에 유래 없는 급속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순탄한 길만이 계속될 것은 아니었다. 한국장로교회 조직시대(1907년~1912년), 한국장로교회 육성시대(1913년~1937년)를 지나 1938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장로교회는 일대 수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제국의 종교탄압정책으로 인한 수난,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대두로 인한 수난, 무신론 공산주의 자들에 의한 수난을 대표적인 것들로 꼽을 수 있다.

“올바른 신앙과 진리를 고수하려는 신앙의 지도자들은 또 다른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1) 일본제국의 종교말살정책으로 인한 한국 장로교회의 수난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동양을 석권할 기미가 보이자 조선총독은 조선통치의 기본방침의 하나인 일한기독교일체화(日韓基督教一體化)운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일선(日鮮)일체화와 일선(日鮮)기독교일체화운동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8년 7월에는 기독교조선연합회를 창설하고 9월에는 순수한 한국인들끼리 조직되었던 한국기독교연합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특히 교회당과 집집에 일본귀신인 가미다나를 걸게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인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였고 찬송가의 여러 부분을 먹으로 지워버리는가 하면 일본어 성경을 사용하게 하고 일본말로 설교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으며 많은 장로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옥에 갇히어 갖은 고생을 겪었으며 박해로 인한 순교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제2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가결한 신사참배는 정말로 교회로서는 가슴아픈 일이었다.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40분 평양 서문밖교회당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평양·평서·안주등 3노회 연합대표인 박 응률씨의 긴급동의로 신사참배결의 및 성명서를 낼 것을 가결하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는 신도(神道)가 종교도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신사참배를 숭선권행하고 비상시국 하에 황국시민으로 적성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이같은 일본의 종교말살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신사참배 가결에 대해 항의하던 방 위량(W. N. Blair), 한 부선(B. F. Hunt) 선교사들은 제명 축출당하였다.

이후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 장로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투옥, 옥사, 순교의 수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 기선 목사는 치안유지법 위반, 불경, 보안법 위반, 육군형법 위반등의 엄청난 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았고 그 외에도 김 인희, 박 신근, 서정환, 한 상동, 이 인재, 안 이숙, 이 광록, 오 운

선, 김 화준, 고 흥봉, 장 두희, 양 대륙, 주 남선, 조 수옥, 최 덕지, 손 명복, 채 연빈, 이 현숙, 방계성등이 억울한 죄명을 쓰고 옥고를 치루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수난 중에도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다.

(2)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대두로 인한 수난

한국교회가 한국의 문호개방(門戶開放)에 힘입어 많은 선교사들과 외국의 여러 신학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과되지 않은채 들어온 사이비 신학사상들 때문에 또 다른 혼란과 진통을 겪어야 했다. 즉 올바른 신앙과 진리를 고수하려는 신앙의 지도자들은 또 다른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8.15해방과 함께 노골화되었다.

일제말 대수난의 상처가 너무 커서 출옥한 성도와 교역자가 많지 않고 지하의 교역자 수도 많지 않음을 기회로 일제의 어용단체였던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총리이던 김 관식 목사 이하 여러 인물들이 소위 「남북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출옥 성도들을 기만하려 하였다.

1945년 11월 3일 출옥성도들을 중심으로한 제47회 경남노회가 개최되고 주 남선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통회·근신기간을 정하여 교계의 복구재건을 노력하였다.

그러나 앞서의 거짓 종들은 회개는 고사하고 이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따로 노회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이 불법노회를 총대로 받아들이는 큰 과오를 범하므로 인하여 고신측과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신학 계통에 분열이라는 쓰라린 고초를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맛보게 되었다.

그 후로 용공을 내포한 W.C.C(세계 기독교협의회)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이 한국장로교회를 또 다시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열시켰다.

I.C.C.C(국제기독교연합회)에서 W.C.C를 평가하기를 “그 근본목적이 공산주의와 합세하는 악마와 그 사자들의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수난 속에서 장로교회는 신학사상이 변질 혹은 숨어든 사이비 신학사상과 그 선교단체 등과 단절을 하면서 진리파수, 올바른 신앙고수를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백락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전통으로 하여,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순교의 정신으로 바른 신앙을 고수하여 온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3) 공산주의(무신론주의)자로 인한 수난

1945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북 땅에 공산주의 소련군의 주둔과 함께 공산주의(무신론)자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6.25라는 전쟁을 일으켜 이남에 있던 남은 기독교인을 학살한 것은 실로 형용키 어려운 비극이었다.

무신론자들의 종교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①기독교회 지도 인물들은 투옥되어 옥사 또는 행방불명되었고 ②기독교 연맹이라는 거짓 단체를 만들어 주일날 공산주의자들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하여 주일예배를 못드리게 하고 예배당에서 정치강연, 정치적 모임을 강행하는 등 계획적인 만행을 수없이 저질렀다. 그리고는 결국 예배당을 파괴하고 불살라 버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집단 학살을 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6.25동란이라는 혼란기에 남한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날 남한 땅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 보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수난 속에서 한국 기독교회는 참 신앙의 뿌리를 순교의 피 속에서 깊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3. 현대 장로교회에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장로교회가 자체 내에 신앙의 모습을 재정비할 때가 된 줄 안다. 그 이유는 우려되는 두어 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 자기 주관에 맞추는 인본주의 신앙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병이 낫는다고 믿으십시오. 곧 낫습니다”라고 외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말들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주관적인 형편대로 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어떤 병자가 낫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불려가 시니 오히려 온 가족 친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룩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기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귀나 즐겁게 하시는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고 전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순교자적인 신앙이 더욱 요구되는 때가 지금인 것이다.

둘째, 말씀을 떠난 신비주의 경향 때문이다.

어떤 교역자에게 왜 교인들을 그렇게 인도하느냐고 물으니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교인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란단다.

말씀 중심이 아닌 신비주의 집회는 차츰 교인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런데 강단에 선 사람이 주보로 부채질을 하거나 와이셔츠 바람으로 서서 인도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옷도 단정히 해야 하는데 광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정신없이 고퇴치고 하는 모습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

과거 일제시대의 예를 들면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은 신사참배 강요에 못이겨 교회당을 총회적으로 못을 박아 폐문하게 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있는 말씀에 평상시 접하지 못하였고 스스로의 신비에 빠져 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로교는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참 순교의 신앙을 고수하여 왔었던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의 맥락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전통으로 하여,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순교의 정신으로 바른 신앙을 고수하여 온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중천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제일주의·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으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참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卍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17〉

개혁주의 신앙노선이란

—정통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조 영길 목사 (심방위원회 제1지구 담당)

I. 서론

개혁주의 신앙(Reformed Faith)이란 갈빈주의 신앙(Calvinism Faith)을 가리킨다. 「갈빈주의는 그 자체가 유신론이며 복음주의이다」(Benzamin B Warfield)란 말과 같이 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 기본원리로 한 위대한 신앙체계를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 조직한 사람이다.

많은 개혁자들 중에서도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노선이 가장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말씀에 가깝고 정통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노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이란 정통 보수적인 신앙과도 통한다. 하나님 신앙에는 언제나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좋아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고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신 5:32~33)라고 하셨다. 이같은 말씀

은 신앙에의 정로(正路)로 행하라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대로 믿는데 보수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할 때에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는 믿음생활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요, 정통보수적인 신앙이다.

새성전으로 이전하는 큰 과제를 앞에 둔 총회교회로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앙노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봄직 하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이 주창한 다섯 가지의 큰 슬로건(Slogan: 표어와 합성)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노선이요, 우리가 본받고 힘써 따라가야 할 믿음과 생활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확신하는 동시에 그 집약으로 본다.

II. 본론

I.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개혁주의 신앙과 바른 신앙생활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뜻한다. 어리석은 헤롯 왕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 그 결과 그는 충이 먹어 죽었다(행 12:23).

성도의 삶은 그 삶의 전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중심과 목적을 두어야 한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일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전 10:31 참고). 쉬운 예를 들어보자.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힘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예배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예배의 주인공도 될 수 없다. 칭찬과 찬양과 박수의 대상이 그 누구

도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교회에서 공공연히 성역○○년 축하예배, ○○학위 취득예배, 회갑 축하예배, ○○축하예배... 등 과연 이와 같은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인가?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 하겠다.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기도 내용에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이익과 성공과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유익과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표에다 두지 아니하면 참다운 기도로 볼 수가 없다.

하여간 총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으로 자신의 믿음과 생활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하며 살피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아무리 큰 이익과 명예와 상급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히 거부해야만 한다. 정통신앙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활하는 것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 : 36)

2.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성경 말씀에다 믿음과 생활의 바탕을 둔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는 우리도 머문다. 성경이 말하는데까지 말하고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한다. 절대로 성경 말씀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성경은 완전 영감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66권 신구약 성경 말씀 밖에는 다른 말씀이 있을 수가 없으며 이 말씀은 부족하거나 과다하여 남지 않는다.

인류 구원 역사에 완전충족한 계시로 완성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붙들고(빌 2 :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 : 밝힌다는 말씀의 본 뜻은 epeko : 굳게 붙잡다. 굳게 소유한다) 상고하고(요 6 : 39),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행 7 : 11), 그 말씀을 행하므로(약 1 : 25)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찬송

도 말씀 속에서 찬송하고 우리의 기도도 말씀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다 믿음에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믿음생활이 흔들리고 만다.

칼빈은 그의 역작 기독교강요 제1권 9장1항에서 밝히기를 “성경을 버리고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오를 범했다기 보다 광기중에 걸렸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성경의 사용은 단순한 과도기적일요 일시적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의 정신착란은 얼마나 악마적일까?”라고 하였다. 사실 그렇다. 성경 말씀을 내던지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안되고 구원도 없다. 소위 깊은 산속에서나 적막한 곳에서 수년 동안 기도하며 은혜받았다는 이들이 간신히 성경 말씀은 지나간 계시요 내가 새로 받은 계시가 있다는 망언을 한다. 이같은 일은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있을 것이다. 성경은 아예 덮어놓고, 읽거나 상고하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로 사람의 감정적인 요소에다 신앙의 근거를 두는 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같은 것은 극히 위험한 것이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빠지고 만다. 성경 말씀을 절대로 등한히해서는 아니된다.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며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제생활에서 행하여야만 한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생활에의 변화를 가져오며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힘쓰는 기도가 없이는 아니된다.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여 머리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믿고 그 믿는바 말씀을 손과 발로 생활에 실천하여 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이요,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66권 신구약의 말씀을 모두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설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 : 19)

3. 오직 그리스도(Sola Christo)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간다”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한 분 밖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으며 믿고 따를분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히 3 : 1)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히 12 : 2)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벤전 2 : 21). 오늘에 와서

많은 다른 예수가 나타났다. 문 예수(문선명 통일교), 박 예수(박태선 전도관), 구 예수(구인회 재림예수) 등 앞으로도 계속하여 “내가 예수다!”라고 하며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한다고 해서 그를 믿고 따라가거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며 은혜줄 것을 믿어서는 아니된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요 14:10)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참 구주는 없다. 모세도 홀로하고 엘리야도 홀로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들은 떠나가도 우리 앞에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눅 9:30~36).

참 성도는 예수님만을 마음에 영접한 자요(요 1:12)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요 15:5) 예수님에게 속한 자요(막 9:41), 예수님께 붙은 자요(고전 15:23)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롬 1:6, 고전 6:19~20). 우리에게 유대교에서와 같이 앞으로 오실 초림의 메시야도 없고 이단에서와 같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도 없고(고후 11:4) 오직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오신 나사렛 예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제 불원시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밖에는 없다.

오직 예수! 이 신앙은 환경과 처지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롬 8:35~39).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살전 5:16~18) 역사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소망과 수고하는 사랑을 가지고(살전 1:3) 승리하는 믿음생활을 한다.

4. 오직 은혜 (Sola Gratia)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가 젊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같이 착각하고 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힘을 주시어 기동하며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행 17:25, 28) 그것 뿐인가? 우리들이 소유한 믿음과 구원원생과 갖가지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엡 2:8). 은혜란 일한 것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것이다. (주: 구약에서 은혜란 말은 켄(Ken)으로 그 뜻은 총애와 호의요, 신약에서는 카리스(Karis)로 역시 그 뜻은 총애와 호의를 말하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배

풀어 주시는 총애와 호의는 언제나 축복과 행복을 베풀어 주심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같은 행복들은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요 어떠한 청구권이나 공로에서가 아니다(롬 4:4~8).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적인 삶이나 신령적인 삶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며 또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방편과 수단이 서너 가지가 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완성됨)와 기도와 찬송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이고도 충분한 은혜생활을 위하여는 항상 이상의 은혜 수단을 균형있게 유지하여야만 한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례, (세례 교인은 성찬에 참여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 이 중에서 어느 한 쪽으로만 너무 기울어져도 아니된다. 말씀을 날마다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마 4:4) 그 말씀 속에서 생활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서 찬송하며 말씀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야 한다. (주: 루터교회나 카톨릭교회에서는 대예배와 미사 때마다 성찬예식을 베푼다. 증현교회는 칼빈이 주네브시를 개혁할 때와 같이 연중 네 차례를 베풀고 있다). 충분한 은혜생활을 지속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생활을 조화있게 해 나가야 한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는데만 그치면 그의 생활은 냉랭해지기 쉽고, 말씀없이 기도에만 전심한다면 잘못 되기가 쉽고, 말씀과 기도없이 찬송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남에게 소란만 피울 것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중에 그 바탕은 역시 말씀이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믿음이 있고(롬 10:17) 말씀 속에 마음의 뜨거움이 있고(눅 24:32) 말씀 속에 안위와 소망이 있고(롬 14:4) 말씀 속에 거듭남이 있고(벧전 1:23) 말씀 속에 즐거움이 있고(시 119:92, 111) 말씀 속에 기도와 그 응답이 있고(시 119:145) 말씀 속에 삶이 있고(시 119:93) 말씀 속에 성령님과 그 충만이 있기 때문이다(엡 5:18, 골 3:16 비교)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오직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직 그 은혜로만 금생도 내생도 가능하다.

5. 오직 믿음 (Sola Fide)

이 세상 이방종교에서는 인간의 수양과 금욕과 고행을 강조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간의

선한 행위를 추가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에는 오직 믿음 밖에는 없는 것을 선포한다. 믿음만이 우리 생명의 구원 영생이요, 은혜 축복이요,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1517년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하였다. 오직 믿음! 이란 슬로건은 루터가 가장 높이 쳐들었던 구호였다. 그렇다 믿음으로 구원이요 믿음으로 축복이요 믿음으로 승리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매사에 임하여 승리한다. 이같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눅 17:5~6, 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뜻은 살아있는 믿음과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리킴) 참 믿음이요(딤후 1:5) 온전한 믿음(약 2:22, 주: 온전이란 말씀은 텔레이오(Teleio)란 말로 그 뜻은 완성한다, 성취한다, 완전하다는 것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을 가리킴)이요 역사하는 믿음(살전 1:3)이요, 응답받는 믿음(눅 18:7~8, 마 8:10~13)이요, 승리하는 믿음(요일 5:4~5)이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한다. 성장하고 전진할 뿐이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은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요(합 2:4) 신약의 바울 사도의 믿음(롬 1:17) 개혁자들의 믿음이요, 오늘 그들의 뒤를 가는 정통보수주의자들의 믿음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히 11:6). 믿음은 가장 좋은 제물이며(빌 2:17) 보화이며(마 13:44) 보배이며(벧후 1:1, 고후 4:7) 금보다 더 귀한 것이며(벧전 1:7) 무기이며(엢 6:16, 벧전 5:8~9)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벧나무 뿌리뽑기-눅 17:6- 산을 옮기기-마 17:20-, 약 대를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는 일-막 9:23, 막 10:26-, 주: 이상 세 가지의 표현은 불가능의 대명사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심).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다. 그러나 현실 교회를 보라! 하박국적인 믿음과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원색적인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막 9:24)라고 오늘 우리도 소리높여 부르짖어야 하겠다.

III. 결론

오늘 우리 총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노선이요, 정통보수자들의 신앙생활이다.

중세교회를 개혁한 개혁자들(특히 3대 개혁자: 마틴 루터, 츠빙글리, 존 칼빈)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합성과 높이 쳐든 5대 것말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정통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나아갈 길과 믿음과 생활의 정로로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 우리 총현의 성도들도 이같은 다섯 개의 것말을 꼭 붙잡고 또한 높이 쳐들고 힘차게 걸어가야 하겠다.

근년에 와서 개혁주의 신앙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도 좀 이상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장로교회의 고유적인 전통성과 독특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냉랭하고 딱딱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너무나 소란하고 무질서하고 어지럽다. 무엇이 은혜인지 어떻게 하든 은혜인지 아무리 보아도 좀 이상한 데가 있다. 개혁주의 신앙, 정통보수적인 신앙, 그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대로 5대 슬로건을 높이 들고 살며 조용하면서도 뜨겁고, 경건하면서도 풍성한 은혜, 질서 중에서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충만, 말없는 충성과 헌신과 순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전 생애의 목적을 두고 주신 말씀을 날마다 때를러 먹고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총현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상과 같은 5대 슬로건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를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총진군하여야 하겠다. ✕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 139:7 상〉

우리교회의 신앙의 발자취



이 두란 전도사

심방위원회

5지구심방담당

1. 60년대 충현교회 모습

1965년 1월 26일 화요일 내가 처음 충현교회에 부임하여 다음날 수요일밤 예배시 본당에 올라가서 제일 뒷좌석에 앉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의 옷차림이 검소했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갓 시집온 새댁같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발자욱 소리도 없이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살며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때는 눈보라치는 미끄럽고 캄캄한 밤길이었었고, 그때만해도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았고 큰길에도 지금처럼 고층 건물은 별로 없고 가게 앞을 지나가야 전기불빛이 보이곤 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는데 놀랐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옷차림도 사치스럽고 하이칼라 신자가 많고 밤 예배는 잘 모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당회장 김 창인 목사께서 시편 123편 2절 말씀 “중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중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를 내용으로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 나와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둘째, 예배 시간마다 잘 모이는 모습이였다.

주일 낮예배는 1부, 2부 합하여 1600명에서 1700명 사이였는데 주일 밤예배는 800명에서 900명 정도로 낮예배의 절반 이상이 모였고 수요일예배에도 520명에서 600명 이상 모였고 새벽기도회는 170명에서 180명 많이 모일 때는 200명 이상 300명 가까이 모일 때도 있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는 성경 특별강좌가 있었는데 강사는 당회장님이셨고 유년부실에서 비좁게 모여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철야기도를 하고 새벽예배를 드리고 가는 교인도 많았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에는 좌석이 비좁아 강대상 바로 앞까지 다가 앉아야만 했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철야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철야기도를 하라고 광고하는 일도 없었지만 스스로 밤이 깊도록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인이 많았다.

그리고 강화도, 난지도, 소사(역곡)등 먼 곳에서 오는 교인들도 많았다. 지금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우유, 음료수도 없었고, 플라스틱 그릇, 편리한 비닐봉투도 없었던 때였지만 그들은 매주일마다 삼배 수건에다가 소금바른 주먹밥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기도하며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보았다.

어느날 내가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힘들지요?”라고 물었더니 “아네요, 재미나요. 월요일부터 주일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쁨으로 옵니다”라고 대답했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전도사인 내가 이처럼 마음이 흐릿할 때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본 때도 있었다.

셋째, 경건한 예배의 모습이었다.

예배가 시작되면 엄숙한 태도와 분위기로 안내자도 앞에서 어른거리는 일이없이 뒤에서 안내하였으며 늦게 오는 교인은 부끄러운 얼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좌석에 앉곤 하였다. 그것은 헌법 예배모범 제 2장 2항에 준한 태도로 경건한 예배 모습이였다. 예배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거두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 : 24)

너무 노출이 심한 옷차림 -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의 마음 자세에서 나온 옷차림은 아닌 것 같다.

2. 70년대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수가 늘어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의 5대 목표의 하나인 천국일군을 잘 키우고 있었다.

심방부에서는 성도들을 잘 돌보기 위하여 전적으로 심방만을 위한 교역자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양무리를 돌보아 병든 자를 위로하며, 낙심한 자를 권면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전도부에서는 민족복음화를 위해 전도회를 강화시켜 각처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방방곡곡에 차량전도와 농어촌 교역자 또는 지도자(장로, 집사, 교사)를 초청하여 훈련시키는 일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그리고 북한선교를 위하여 신앙훈련 특공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

성경연구원에서는 전교인을 상대로 하여 전전한 신앙생활로 교회에서의 봉사의 사명과 사회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을 3년의 교과 과정을 거쳐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도자양성부를 새로 마련하여 지금까지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 설립 15주년인 1968년대에 3,0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바라던 중 3,000명의 두 곱이 넘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을 축복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3. 80년대 교회의 모습

80년대에 와서는 몇 가지 변동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예배드리는 모습이 60년대와는 차이가 많은 것 같다.

그 이유가 있다면 예배당이 비좁아서 강대상 위에까지 앉아야 하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데도 안내자들이 앞자리까지 인도하느라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떠나기 전 감사와 회개와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도 보조의자를 치우느라고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놓는 일이다. 이것은 새성

전에 이사가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그외도 시정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옷차림도 놀랄 정도로 세속화되는 것을 느낀다. 잠옷같은 옷을 입고 오는가 하면 팔소매가 없는 너무 노출이 심한 옷차림도 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의 마음 자세에서 나온 옷차림은 아닌 것 같다.

지금부터 약 16년 전 어느 주일이다. 짧은 애기엄마가 팔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던 이 명달 공로전도사님께서 뒤쫓아가서 "애기엄마, 다음에 교회올 때는 이런 불경스러운 옷은 입고 오지 마소"라고 충고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아직까지 그 전도사님께서 생존해 계셨더라면 지금처럼 그런 옷차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세대차이인지, 전에 받은 인상이 굳어진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경건한 중심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세와 외모까지도 다 갖추었으면 한다.

둘째, 주일 낮예배로 족하다는 관념이 많은 것 같다. 설교자의 책임도 없지는 않겠지만, 집이 멀어서 밤예배까지 오기 힘들어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지,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각부에서 활동하다 보니 몸이 지쳐 밤예배는 피곤해서 못 드린다는지, 텔레비전 연속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혹은 예배는 한 번만 드려도 족하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는 것 같다. 집이 아주 먼 거리라면 할 수 없지만 도보로 20분, 차로 30분 정도의 거리라면 밤예배도 본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좋은 줄 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핑계이지 성숙한 성도의 자세는 아닌 줄 안다.

세째, 비정상적인 교인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기형아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머리는 커가는데 몸이 자라지 않거나 몸은 큰데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을 말한다. 신자 가운데서도 참 신자라면 지·정·의(知·情·意)를 고루 갖춘 균형있는 신자라야 한다. 혹시라도 균형을 잃은 신자, 아는 지식만 많거나 가슴만 달아올라서 열심인데 말씀의 지식은 없거나, 행실은 괜찮은데 가슴이 냉랭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오염되지 않은 바른 신앙을 후대에게 물려주며, 세계를 한
하여 전통적인 바른 신앙을 수출하는 칭찬받는 되기를 바란
다.

결론으로, 성년된 충현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한다.

흔히 말하기를 30살난 사람보고 성숙한 청년이라
고 한다. 30살이 되면 선후배 관계에도 예의를 지
킬 줄 알고, 앞뒤 순서를 찾아 앉을 자리, 설 자리
를 가릴 줄 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철이 들었다
는 말도 되겠다.

어떤 박사가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한국 교회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 또 한국 교회는 충현교회가 짊어져야 한
다는 말도 들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수적인 성
장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우리 한국 교
회의 사명일 것이다.

이와같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가슴에 안고 있
는 충현교회의 성도들의 사명이 더욱 중차대하다.

‘한국의 기독교사’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사상이
침투했을 때, 평양신학교의 설립자이며 한국 선교
의 대인물인 마포삼렬 박사는 1934년 회년 기념에
배 석상에서

“내가 한국에 처음 와서 복음전도를 시작하기 전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하나
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구원의 복음만을 전
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나는 사도 바울이 결심
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
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으
며, 만일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생
각하였다.”

라고 한바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초대 선교사들의 신앙자세와 신학사상의 중심을 보
여준 것이었다. 초대 선교사들의 신앙사상은 사도
들이 믿고 전했던 전통의 바른 신앙을 그대로 보수
하고 친구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해 주었다.

앞서 가신 순교자들도 사도들의 바른신앙을 전하
였고 우리 교회 김 창인 목사님께서도 바른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일제시대에 옥고를 치루었고 신사
참배 반대 성명서를 내고 만주에 다년간 망명하시
다가 8.15해방과 함께 북한에 교회를 재건하여 복
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의 교묘한 방해와 핍박을 받
고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와서 충현교회를 18
명과 함께 설립하시고 바른 진리, 바른 신앙을 전

하기 위해서 땀으로 옷을 적시며 때로는 피를 토하
시며 말씀을 선포한 결과 오늘의 30살난 충현교회
가 된 것이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진리, 초대 선교사
들이 전해준 복음의 전통적인 바른 신앙을 간직하
여 후대에게 물려주며 자유주의 신학사상에 오염되
지 않고 세속화되지 아니함으로 민족을 복음화하
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 서고 세계를 향하여 전통적인
바른 신앙을 수출하는 선교 사명을 하다가 빌라델
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계
3:7~12). 中

□그루터기

어린인격에도 대접을

아이가 호주머니에서 껌을 꺼내어, 껌
껌질을 벗긴다. 그리고 껌을 입에 넣고
껌껌질은 손에 들고 있다.

김목사님께서 아이에게 다가 가신다.

아이에게 무어라고 말씀하실까?

‘애! 껌껌질은 꼭 휴지통에 버려라. 알
았니?’

아니면, ‘애야. 껌껌질은 아무데나 뽀
부로 버리면 안된다. 알았니?’

아니면, 친절하게 ‘애! 그 껌껌질은 나
에게 주려마’라고?

그런데 김목사님께서

‘애야. 너 그 껌껌질로 무얼 할거니?’

하고 아이의 의중(마음속 생각)을 물
으셨다.

아이는 대답했다.

‘이거요—오, 저어기 휴지통에 갖다 버
릴거예요.’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휴지통 쪽으
로 걸어갔다.

〈편필실〉

한국 장로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김 차생 장로 (성경연구원장)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어언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세계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가 이처럼 발전을 이룩하기까지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서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 한국에 건너온 선교사들은 건전한 장로교 목사로서 철저한 신앙을 소유한 청교도적 생활의 순결성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 신앙의 조상들에게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고의 열매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선교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백성의 가슴 속에 부딪힐 때 그것은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의 울음이 전 거래의 가슴을 찢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일찌기 경험할 수 없었던 회개운동이, 다시 말하면 '나는 어찌할꼬'란 통회자복 회개의 부르짖음이 평양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 방방곡

곡에 퍼져 나갔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고 있었던 한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곧 거래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몸소 같이 나누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고난과 수난에 동참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교회는 본래적 사명을 망각하거나 본분에서 이탈할 수는 없었다. 다시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고있던 영국 선교사 페이제트 윌케스(Paget Wilks)의 일기를 볼 것 같으면 한국 초대 교인들의 생생한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는 1911년 언더우드 목사의 초청을 받고 한국에 와서 약 한 달동안 체류하면서 신의주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회들을 역방하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다음과 같이 일기에 기록하였다.

① 어디를 가나 교인들은 성경공부에 열심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성경공부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참으로 성경은 "한국의 책"이다.

②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일성수에 철두철미하다. 그 모습은 마치 옛날 스코트랜드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흡사하다.

③ 자립정신이 강하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財力)으로 목사, 조사를 섬길 뿐만 아니라 예배당도 건축하고 있다.

④ 진도열이 강하고 특히 개인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신자가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교사가 특별 지도를 하고 있었다.

⑤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신앙이 강했다. 선교사들은 예수의 재림을 그저 평범하게 가르치고 있었지만 받아들이는 쪽은 아주 진지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강했다.

⑥ 성경연구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고등비평이 전혀 없었다.

19세기 말 한국에 건너온 선교사들은 건전한 장로교 목사로서 철저한 신앙을 소유한 청교도적 생활의 순결성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 신앙의 조상들에게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윌케스 선교사는 한국교회를 시찰한 후 자기가 직접 선교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서 한국교회의 장점과 일본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진지한 이유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놀라운 축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부흥회라는 말 대신에 사경회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특별집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공부가 특색으로 되어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일본의 가혹한 핍박과 탄압 아래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앞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었다. 그러므로 일제탄압 초기에 있어서 일본정부 당국에 의해서 탄압과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민족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이었다. 기독교 신앙과 민주주의는 동시적으로 기독교인의 가슴 속에 박혀있었다.

이와 같은 사상이 활짝 피어오른 것이 3.1운동이었다. 그러나 3.1운동으로 인한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겹더미 위에서 통곡하면서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섰다.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이 땅에서 기독교회를 말살시킬 목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교회는 굴복했지만 바깥에게 절하지 않는 소수는 용감하게 저항했다. 주 기철 목사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박 관준 장로는 일본 국회 의사당에까지 가서 신사참배가 죄라는 것을 예언자적으로 역설하다가 체포되어 결국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다. 우리는 한 상동, 주 남선, 손 양원, 이 기선 목사들의 신앙의 지조와 투쟁과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뿐이라! 6.25 당시 북괴군이 남침하여 대한민국을 유린했을 때 북쪽과 남쪽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들을 체포하여 심한 고문 끝에 총상 또는 생매장을 하였던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이들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을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요 둘째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배반할 수 없

었기 때문이었다. 신앙의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것이 곧 생명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해방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1938년에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약 7년동안 한국교회는 심한 박해때문에 명이 들었고 변질되었다.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신앙의 향기와 과거에 타올랐던 열기로 식어져 있었다. 해방의 종소리에 깨어 배드로와 같이 회개의 통곡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었다. 정말 그 점이 아쉬웠다. 과거에는 교회가 민족의 모범이 되었지만 교회가 제자리를 되찾아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통과 휴유증은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가까웠던 한국교회 안에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비주의적 기복신앙과 세속주의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또한 이단운동이 여기 저기서 판을 쳤고 많은 교인들이 유혹을 당하였다. 정치의 악순환과 교회의 정황이 어찌면 비례했다고나 할까. 설상가상으로 세속주의와 함께 불건전한 육적 감정주의적 신비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침입했다.

과거 한국교회의 내적 충실과 그 영광은 지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어떤 과오도 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이 아닐까? 그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의 정기(正氣)가 살아있던 그 옛날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신앙과 윤리가 통일적 조화를 이루지 못한채 그저 비대해져 가기만 하고 있다.

신앙을 마술적 내지 요술적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기복만을 강조하는 반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가야 한다고 외치는 교역자는 드물다. 목사로부터 예언자적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대신 제사장적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일부 지식층 신자들은 교회생활을 고상한 교양생활로, 그 반대층은 기복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는 자, 그 몇이나 되는가? 역사의식이 빈약하니 시대적 사명감도 없고 방향감각도 없으니 교파나 교회간의 목소리가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파수군의 나팔소리가 들리지

당시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부흥회라는 말 대신에 사경회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특별집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공부가 특색으로 되어 있었다.

않는다. 불협화음은 아무리 크게 울려도 싸우려는 병사들에게는 오히려 혼란만을 야기시킨다.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자만과 안위와 나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국교회는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않은지 심히 염려스럽다. 오늘날과 같이 교파도 다양하고 신앙 형태도 다양하여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부흥회 선교기관등이 많아,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때에 최소한 한국 초대교회의 철저한 신학과 신앙 사상과 경건생활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제 필자는 현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의 신앙노선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진리를 바로 지키려면 옳은 신학사상을 가르치고 따라야 한다.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체계적 지식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학은 칼빈주의신학이다. 이 오대 원리의 신학은 오직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인 신구약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에게 이루어짐을 믿는 신학이 칼빈주의신학인 것이다.

둘째, 이적을 구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

김 익두, 박 재봉 목사등 병을 고치는 기도와 부흥회가 성행하여 한국교회는 이적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적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거짓 이적이 있으니 문제가 된다. 이적을 통하여 자기가 구세주인양 큰 자세를 취하는 자가 있는 반면 또 일반 교인이 이적에 정신을 못차리는 습성이 있으며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보다 기도원에서 안수기도하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볼 때 한국교회 장래가 암담하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적과 요나의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째, 부흥회는 왜 그렇게 소란을 피워야만 하는가? 대부분의 부흥사가 성경 교재나 설교 노트만

들고가는 것이 아니라 전속악단과 전속성가단을 대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리에 전신주나 게시판에 붙어있는 선전 포스터를 보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심지어 복음성가를 부른다는 것을 빙자하여 매스컴을 타고있는 대중가요의 가수를 대동한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간증하는 사람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이 집회를 위해서 실내 체육관이나 공회당을 빌린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전문적인 조명기가 동원되고 부흥사의 의상은 베이지색 양복에다 주로 빨간 넥타이에 분장에 신경을 쓴다. 이 정도이면 부흥사는 일류의 스타가 아닐 수 없다. 대중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부흥회에 나가서 함께 웃고 울고 박수치고 뛰다보면 일반적인 교회의 집회가 시들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교인들은 소란한 곳만 찾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고보니 교회에 공식예배에 대한 방법도 변질되고 교회 밖으로만 관심을 돌리는 반면 교역자들의 예배인도의 방법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류의 방법으로 오염되고 있다. 왜 방언을 해야 하고 입신을 해야 하고 소란을 피워야만 예배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집회의 열심만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고 민족복음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집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이버 신앙의 본상이 되고 있는 이상기류의 집회열이 결코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째,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00여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아름다웠다. 초대 한국교회가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경건생활의 덕이 갑자기 밀려온 외래의 풍조때문에 주일성수, 주초문제, 교회의 권징과 치리권 상실, 적당주의때문에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하다. 이런 것들을 문제화하지 않고 강한 경고를 하지 않는 것도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교회는 교인들에게 높은 도덕적 규범을 철저하게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윤리의식을 결단성 있게 확립하고 주님의

호렙산에서 타는 덩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던 음성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섬기던 성소의 뒷방에서 잠자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재림을 건실하게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한다. 최소한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불신자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여섯째, 참된 교계 지도자 빈곤문제를 들 수 있다.

종교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지도자와는 다르다. 종교지도자는 오직 뜨거운 가슴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호렙산에서 타는 덩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던 음성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섬기던 성소의 뒷방에서 잠자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의식도 없이 교계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지 모른다. 다만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몰려오게 하는 지도자만이 판을 치고 있다.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마저 아

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왜 한국교계 지도자는 그렇게 많은데 나라와 민족의 길잡이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역사의 올바른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편견과 고집과 아집만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한 예로 같은 교단에서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싸우는데 대하여 지도자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이 교회 분열의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모두가 루터요, 칼빈이요, 웨슬레라고 말하고 있다. 모두 자기가 옳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와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굽어 엎드려 나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철저히 가르쳐야 할 것이다. **✠**

□신앙일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느냐

한 여선생이 무디를 찾아왔다.

“나는 심한 각혈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가면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생은 자기의 건강보다 더 심하게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듯했다.

“나는 내가 말고 있는 반 아이들을 한 명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여선생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계속하였다. “오히려 아이들을 더 거칠게, 더 못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듭니다. 이제 나는 곧 죽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디는 전에 한 번도 이와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을 많이만 모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아이들을 많이 모아

다가 학교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어서 1500명 까지 아이들을 모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 여선생은 무디와 함께 자기 반 학생들을 찾아 집집마다 심방했다. 창백한 여선생은 만나는 학생마다 붙들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고 묻고, 믿는다고 대답하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디와 그 환자선생은 각 학생마다 일일이 방문하는데 열흘이 걸렸다. 만나는 학생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여선생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내 반 학생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해 왔으니까요”

목사 안 석 렬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결과

이사야 6:1-7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사 6:5)

웃시야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1.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사 6:5)

(1) 자기의 허물을 뵈가지로 깨달았습니다

백성은 타락하고 관원들은 불의하여 행패를 부리는 이 때에 온 세상은 다 더럽고 타협하지만 나만은 깨끗한 줄 알았던 이사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 갖가지 허물들이 들어다 보입니다.

① 「나는 부정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도 그렇고 천사들의 영광과 비교해도 자신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구나!

② 「나는 비천하다」

나는 더러운 뿐만 아니라 약하고 못난 구테기 같은 인간이로다. 아무 보잘 것이 없는 비천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③ 「나는 무지하구나」

나는 아무 것도 몰랐구나.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천사들의 일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랐구나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④ 「나는 충성하지 못하였구나」

천사들은 쉬지 않고 날개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일초의 역만분지 일도 머뭇거림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한 발 두 발 재고 하루 이를 재고 마치 못해 순종했지 정말 내가 단 마음으로 얼마나 충성했나? 내게 전적 순종이 없었구나! 전적 순종이 없는 불충성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⑤ 「그러면서도 교만했던 나로구나!」

이렇게 더럽고 비천하고 무지하고 충성하지 못했으면서도 나만이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교만했구나! 자기의 교만을 발견했습니다.

⑥ 「특히 자기 입술이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사 6:5)

이사야는 자기 죄를 깨달을 때에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지체 중 제일 작으면서 제일 세력이 강하고 무섭고 때로는 제일 악독해 질 수 있는 것이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게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10의 구는 나타납니다. 거의 다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되어드는 모든 일들이 세력있는 사람들의 헛바닥 놀림에 불타고 있습니다.

입술은 귀하자면 한없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못되 먹으라면 한없이 못된 것이 입술입니다.

어떤 입술들이 있습니까?

첫째 남을 비방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입술은 자기가 비방받기 위하여 청구서를 낸 입술입니다.

둘째, 남을 저주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내 입술로 남을 망하라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도리어 내집 대문을 두들겨 부수고 찾아옵니다.

셋째, 남을 속이는 입술이 있습니다.

마귀가 거스리고 반역하는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혈면 하나님의 형벌이 엄합니다.

넷째, 남을 죄악으로 꾀는 입술이 있습니다.

남을 꾀어 범죄하게 하는 입술은 생명을 죽이는 입술입니다. 필경 자기도 속고 었드러지는 날이 옵니다.

다섯째, 약자를 공갈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이런 입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혼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섯째,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입술이 있습니다.

돈 받아먹고 억울한 재판을 내리는 입술은 하나님의 재판 앞에 혼나는 날이 옵니다.

일곱째, 거짓 증거를 하는 증인의 입술이 있습니다.

의인을 모함하려는 거짓 증거를 하는 간악한 입술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부르는 입술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옳바로 전하는 입술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복을 빌어주는 입술입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 꺼꾸러져 회개하였읍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यो...』(사 6:5)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허물과 입술의 더러운 것을 바라본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저주받을 수 밖에 없다’ 하며 그 자리에 꺼꾸러졌읍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선지자고 나는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애국자로다! 하며 자기만은 훌륭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이 마음 한모퉁이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조심하며 떨며 찬송하는 천사들을 보니 자기는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됐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꺼꾸러졌읍니다.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자기 입술의 죄를 슬퍼했읍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이 죄송했고 두려웠읍니다. 그래서 꺼꾸러져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는 이렇게 믿었는데 요사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자기가 기도 좀 했다고, 성경 좀 봤다고 혹은 무슨 계시를 봤다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이나 하니 안되겠읍니다.

내가 죄인인줄 알고 꺼꾸러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비로소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체험이 없는 자는 자기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2. 제단 숯불로 고침을 받았읍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제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

라 이것이 네 입에 달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 6:6-7)

이사야가 자기 죄를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꺼꾸러져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스랍을 보내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졌읍니다

“이사야가 자기 죄가 가슴아파 꺼꾸러졌다.

제가 범죄한 것이 내게 너무 죄송해서 꺼꾸러졌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님은 스랍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때 스랍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이글이글 불붙고 있는 핀 숯불 하나를 화제로 집더니 그것을 가지고 날아옵니다.

날아와서는 내 입술이 더럽다고 울던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 무서운 뜨거운 불을 갖다 댑니다.

이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구 뜨거워라’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 뜨거운 불을 갖다 댈 때에 ‘마땅합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요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마땅한줄 알고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글이글 불붙은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오는데 ‘아이구 나는 싫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울습니다 이놈의 입술은 숯불로 지지고 태워야 합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징계의 매를 달게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는 태산같이 지어놓고도 욕 한마디 먹으면 “내가 언제 그랬니”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지저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지옥불에서 천년 만년 억만년 지저야 할 날이 옵니다.

매를 순히 맞을줄 알아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2) 숯불로 무엇이 해결되었을
니까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댔는데 이상합니다. 입술이 몽땅 타져 없어질줄 알았는데 그대신 세가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① 「네 악을 제했다」
더러운 악이 제하여졌습니다.

② 「네 죄를 사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습니다.

③ 「내 복음을 전할 자격을 주

마」
죄를 회개하고 형벌을 달게 받아야 죄를 용서받고 새사람이 되어 비로소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숯불을 입에 댔 때에 이사야는 뜨겁다고 말도 안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옳습니다' 하고 내발길 때 입술은 안 타지고 신령한 면에서 더러운 죄악만 없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슬퍼하고, 자기 죄를 미워하고,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죽고자 하면 그럴줄을 알면 하나님

은 더이상 책망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 죄를 회개하여 가슴 아파하고, 내 죄값으로 내 입이 지저지고 무슨 매를 맞아도 옳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한없이 입혀 주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만 해대면 하나님은 숨겨놓은 죄를 반드시 다 드러내시어 만민앞에 광고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 사람 만 사람 앞에 매맞고 망설이지 말고 미리 회개하여 용서받아야겠습니다.

(계속)

생명의 말씀이 담긴 카세트테이프 안내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을
알게 하신 바
(딤후 3:15)

“은 가족을 위한 강단”
“죄장의 성경교실”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와 군문에서
현대인은 누구나 시간에 쫓기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도 자지 않고
식사를 건너뛰고 겨를 수야 없지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의 건강은,
우리 이웃의 영혼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보다 훨씬 중요 하답니다.
아무리 바쁘신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권합니다.
충현교회 성경연구원에서
전도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설교집과
성경통신강좌를 이용해 보세요.

보급가격: 60분 테이프 케이스입 개당 500원
90분 테이프 케이스입 개당 700원

구입문의나 선택은: 100 -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3. 274-2171~4 충현성경연구원

현재보급중인 카세트테이프 안내

□ 설 교

1. 김창인 목사
 2. 김희보 목사
 3. 윤영탁 목사
 4. 신성중 목사
 5. 이성근 목사
 6. 이종윤 목사
- 외 다수 부목사의 설교

□ 성경통신강좌

1. 로마서 (신성중 목사)
2. 욥기 (김희보 목사)
3. 호세아 (김희보 목사)
4. 학개·말리기 (김희보 목사)
5. 이사야 53장 (윤영탁 목사)
6. 신구약개설 (이종윤 목사)

□ 특강 및 신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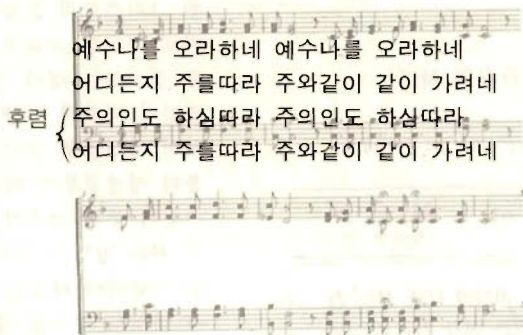
목회 전반에 걸친 특강 및 신학강좌 테이프 다수
*특별히 1963년도 김창인 목사의 설교 6편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케이스에 담아 선물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값 2,500원)

충현교회성경연구원

예수 나를 오라하네

<I Can hear my Saviour Calling>

새 367장 합 243장



김 창근 목사

<예배위원장 2지구 심방담당>

찬송시 내용이나 곡이 심오한 곳에서 부르짖는 호소로서 풍부한 감정이 담겨져 있으며 주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 찬송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1절 :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2절 : 주와 같이 갯세마네 피흘린 동산까지 고난을 각오하고 가겠다는 결심이다.

3절 : 뿐만 아니라 심판의 자리까지 비록 죽음이 온다해도 주와 같이 동행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있다.

4절 : 주께서 은혜주시고 영광배푸사 언제나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신앙고백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고 믿으며, 어디든지 주와 동행하겠다는 의지력과 헌신을 고백한 찬송이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담대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으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어디든지 가겠다는 의지와 결심과 믿음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나게 된다.

이 찬송의 작시자나 연도는 확실치 않고 다만 19세기 사람 E. W. Blandy로 되어있다. 작곡자 존 사무엘 노리스(John Samuel Norris)는 감리교 목사로서 1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썼으나 이 찬송곡만이 남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님을 따르는 길, 복음전리를 지키고 전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고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한다.

효과적인 성경공부 방법

“복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2)

글 쓴 이 이 승수
(중등부 교사)

요즈음 QT Quiet Time; 명상의 시간, 또는 경건의 시간] 운동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거의 없는 듯하다.

이 QT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활을 좀 더 밀착시키자, 또는 말씀을 생활화하자는 건전한 의미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 QT운동에 있어서, 병행되거나 선행되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측면이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경계해야 할 측면을 살펴보면, 17세기에 일어났던<경건주의 운동>의 캣치 푸레이스와 같이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생활이다]라는 모토(Motto)의 활동이다. (월간충현 83년 6월호 p 28 참조) 이 경건주의 운동은 정통교리나 신앙고백은 신앙의 자유함을 얹어매는 쇄사슬 정도로 여기고 외면하였다. 그 결과 신앙에 많은 혼란과 잘못된 신앙사조가 범람하였다.

실제로 요즈음, 이 QT운동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그 성경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쉽게 적용하여 [이현령 비현령] 식의 이해로써 자급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사색 즉 자율(自律)에 의한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박윤선 박사는 그가 편지한 《성경신학》에서 이러한 자기사색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오직 성경에 의한 계시의존사색(啓示依存思索)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문제는 바른 성경공부가 선행 또는 병행되지 못하였거나 바른 신앙고백과 교리적 성경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QT운동은 구원론(교리적)으로 볼 때 성화(聖化)의 단계이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갖춘 이가 자신의 생활을 좀 더 말씀에 비추어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는 경건의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10월호에는 「효과적인 성경공부의 방법」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실 註》

오늘날 양적으로 팽창하여 가는 한국교회 속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성도들의 질적성장 즉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엡 4:13). 바로 이러한 교회적 요청에 의하여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있는 것이 성경공부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갖고 배우기를 열망하여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공부가 바라는 것과 같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성경공부를 하는 방법, 사용하는 교재의 특성,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의 개인적 역량등에 의하여 다양한 결과를 갖게되며, 특히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성경말씀을 지적 전달로만 그치는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배우고자 하는 개개인 성도들이 성경말씀을 너무 안일하게 공부하고 있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며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초래케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히 4:12).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며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될 것이다.

* 성경공부를 위한 올바른 태도 *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아는 수준을 넘어서 생활속에서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말씀을 배울 때는 기쁨이 넘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을 배우게 될 때는 눈물과 쓰라린 고통이 없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때 원리적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는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공부는 책상을 떠나 생활현장 속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성경공부의 여러형태와 그 교재들 *

우리들의 주변에는 여러가지 성경공부 방법과 교재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로, 주경신학적 성경공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는 신·구약을 개론적으

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성경본문 자체를 한절 한절 해석하여 나가는 방법이 있다. 개론적 교재로는 신·구약총론 혹은 개론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책들이 있고 또 주석책의 앞에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다. 성경본문에 대한 교재로는 SBF, UBF의 교재등과 주석책을 참고하여 공부할 수가 있다.

둘째로, 조직신학적 성경공부 방법이 있다.

이것은 주제를 설정하여 놓고 그것에 맞는 성경 구절을 뽑아 해석하는 방법으로 연역적 성경공부 방법이라고도 하며 교재로는 대부분의 CCC·네비게이트·조이선교회·IVF 등의 교재와 두란노 “주제별 성경연구”등이 있다.

세째로, 역사신학적인 성경공부 방법이 있다.

이것은 주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발전되었나를 살피는 교리사와 교회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었나를 살피는 교회사로 대별되며, 교재는 주로 신학서적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

네째로, 실천신학적인 성경공부 방법이 있다.

이것은 주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역사적으로 발전된 결과 그 장점을 택하여,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하는 것으로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에서 답을 얻는 방법이다. 이런 종류의 교재로는 “새 생활 세미나”가 대표적인 것으로 “베델성서의 후편” 대다수의 “제자훈련교재” 등을 들 수가 있다.

다섯째로, 최근에 주목되는 것으로 성경신학적 성경공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조직신학과 주경신학의 영향에서 생긴 방법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맥을 잡고 그 맥에 따라 성경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교재로는 루터교회에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만든 “베델성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으며, 그 외 언약(Covenant), 하나님의 나라 등의 관점에서 성경을 살핀 서적들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체제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상의 다섯가지 성경공부 방법을 살펴보면, 성경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것과 성경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성경공부가 있다. 물론 이 다섯가지 방법의 성경공부는 각자의 독특한 특색과 장점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본문을 하나님이의도 하였던 대로 그 본문의 상황속에서 그대로 배울 수가 있는 주경신학적 성경본문공부와 이를 보충하여 체제를 세워주는 성경신학적 방법 중에서 어느 한 주제를 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경본문공부 *

성경 본문공부를 귀납적 방법(Inductive Meth-

od)이라고도 하며 이 공부 방법은 간단하지만 많은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의 훈련은 성경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의미하며 이런 훈련을 통하여 성경말씀을 올바르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생기며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말씀을 올바르게 다루고 정확히 볼 줄 아는 눈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묵상(Meditation)이란 “심사숙고하다” “진지하게 생각하다” “신중히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있는 낱말로 관찰(Observation) 해석(Interpretation) 적용(Application)을 포함하고 있다. 관찰이란 성경본문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 해석은 발견한 그 사실에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며 적용은 그 의미에 따라 그 말씀을 자기 삶속에 구체화 시키는 것이다.

○ 관찰의 실제 ○

관찰이란 성경본문에서 어떤 의미있는 사실을 보고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첫째로, 본다는 것은 성경본문의 문체 구조 문맥 문법사항등을 관찰하는 것이다.

·문체는 본문이 사건을 묘사하는 설화체인가 사상을 강조하는 강화체인가 아니면 시인이 비유인가 제시인가 등등을 보는 것이다.

·구조는 본문의 문단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대의는 무엇인가 사상이나 행동이 어떻게 발전되며 구분될 수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예) 눅 19:1~10은 설화체로

눅 19:1~4→도입부분으로 중심사건으로 인도하는 상황을 묘사.

5~8→전개부분으로 중심사건의 묘사.

9~10→결론부분으로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맥은 본문전후에 어떤 말씀이 있으며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예) 마 20:1~16은 포도원 품군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전후문맥을 관찰하여야 한다.

본문의 앞부분인 마19:15-22에서 어떤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하였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에 걸리어 근심하며 가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자(23, 24절) 베드로가 자기들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다는 자신만만한 대답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바램을 나타내자(27절) 29절에서 격려를 하시면서 한편으로 30절에서 주의를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자세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본문의 비유(마 20:1~16)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 문법사항은 접속사가 어떻게 연결되었고 주어와 목적어는 단수인가 복수인가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중 어느 것인가 문장은 능동태인가 수동태인가를 보고 이런 사항들이 본문의 사건이나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둘째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그 결과는)라는 일곱가지 기본적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본문 중에서 궁금한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여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세째로, 관찰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소재(Means)와 주제(Reality)를 주목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단어 사건 인물 사상 행동등의 반복 비교 대조 비례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서 인과관계, 목적과 수단 관계, 사상의 진행, 한정적 진술(서론적 진술), 요약적 진술(결론적 진술)등을 관찰하여야 한다.

예) 눅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관찰할 때

• 특정한 단어들로 “잃은” “찾다·찾아서” “회개하다” “죄인” “기쁨·기뻐하다” 등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반복되는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하면 “잃은”은 일곱번 “찾다·찾아서”는 여덟번 “죄인”은 두번 “회개하다”는 세번 “기쁨·기뻐하다”는 여섯번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것 보다는 그 회개의 결과인 “기쁨”에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 비교는 비슷한 것 유사한 것을 연결시켜 주목하는 것으로 세가지 비유에서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작은 아들을 서로 연결시켜 관찰할 수가 있다.

• 대조는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주목하는 것으로 아흔 아홉마리의 양과 잃었다 찾은 한 마리의 양 드라크마 아홉개와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 한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각각 대조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 비례는 중심인물 사건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나를 관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흔 아홉마리 양보다는 잃었다 찾은 한 마리의 양에게 아홉개의 드라크마

보다는 잃었다 찾은 한개의 드라크마에게 큰 아들 보다는 작은 아들에게 성경은 더 많은 지면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 세가지 비유에서 잃었을 때의 원인과 찾았을 때의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 목적과 수단관계는 주제(Reality)를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소재(Means)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망에 대하여 세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잃었다 찾은 영혼에 대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표현 하시면서 한편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독선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가 있다.

• 사상의 진행은 본문의 사상적 흐름을 주목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세가지 비유의 사상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관찰하면 된다. 즉 세번째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어떻게 다시 집에 돌아왔나 또는 첫번째 비유보다 두번째 비유에 두번째 비유보다는 세번째 비유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주목하는 것은 사상의 진행을 아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강화체에서는 중요한 관찰 목록이다.

• 한정적 진술(서론적 진술)은 성경의 본문 앞에서 그 본문의 내용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본문의 서론적 위치에 있다. 특히 이것은 비유를 연구할때 주의하여야 한다.

예) 눅 18:1~8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여 주고 있는데 1절에서 한정적 진술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비유는 이런 의도아래 이해되어야 한다.

• 요약적 진술(결론적 진술)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경우로 대개 본문의 뒷 부분에 위치한다.

예) 눅15장에서는 첫번째 비유는 7절에 두번째 비유는 10절에서 세번째 비유는 32절에서 각각 그 비유에 대한 것을 요약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다.

○ 해석의 실제 ○

해석은 발견한 사실들에서 어떤 의미를 결정하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하는 의도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해석이란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해석은 정확한 관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찰만 정확히 하면 해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한 것은 피하고 주의할 점 몇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 비유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소재와 주제를 정확히 관찰하고 전후 문맥을 살펴 본 후에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예) 눅 10:30~37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낱말을 갖고 일반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오류(기름은 성령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 대나리온 들은 신약과 구약)를 범하기 쉬운데 먼저 눅 10:25~29까지의 문맥을 살펴 본 후 이 비유의 핵심 즉 주제를 찾아야 한다. 즉 율법사의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눅 10:29)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율법사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가로되 자비를 베푸자니이다: 눅 10:37)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 주신 것이므로 이 비유는 이런 문맥속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성경 자체가 그것에 대한 영적 진리를 설명 또는 암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영적진리의 상징이 될 수가 있다.

예) 신 21:8~9에 있는 놋뱀이 장대에 달린 사건은 요 3:14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이것에 비교하고 있으므로 신 21:8~9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진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다.

또 구약의 세 가지 사건 “노아홍수” “할례” “홍해 건너는 사건”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세례”의 모형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신약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세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들이 영적진리를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 노아홍수: 뱌전 3:2Q21

홍해사건: 고전 10:1~2

할례: 골 2:11~15, 롬 6:3

○ 적용의 실제 ○

적용은 성경공부에 있어서 열매이고 관찰은 그 뿌리이며 해석은 줄기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경공부는 적용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삶의 현장까지 성경공부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은 해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자기에게) 구체적으로(계획성 있게) 실제로(실현가능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부한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유익하다. 즉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말씀중 내 삶속에 이 진리가 있을 공간(Space)이 있는가?” 여기서 공간(Space)의 영어문자를 머리글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용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다.

① 고백하여야 할 죄(Sin to confess)

② 주장하여야 할 약속(Promise to claim)

③ 피하여야 할 행동(Action to avoid)

④ 순종해야 할 명령(Command to obey)

⑤ 따라야 할 모범(Example to follow)

예) 눅 10:30~37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적용한다면 먼저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Space의 용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이 본문 중에서 37절의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택하였다면 이 말씀은 순종할 명령이다.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위치에 있는 자(어려움 당한자)가 누구인지를 찾기위하여 지금 나의 주위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여 그 이름을 노트에 적는다. 다음에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 이름 옆에다 그 사람의 문제를 적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제적으로 강도만난 자를 도와준 것 같이 내가 어려움당한 이웃에게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한 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노트에 기입하여 나중에 평가의 자료로 삼고 그 일을 실천하여야 한다. (물론 이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자신과 그 이웃에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방법을 모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이런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하는데 방해가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야(실천하여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체험하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시며 만나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용을 할 때는 한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정도를 택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적용이란 사실상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약도 뒤 따른다. 그렇지만 성경전체의 흐름을 벗어나서 엉뚱한 적용을 하는 것은 피하여야 하며 올바른 적용이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 속에서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인 묵상 즉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참고로 성경공부에 있어서 도슨 맥엘리스터의 Press

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본문을 읽기 전에 기도할 것(Pray for a moment)
- ② 성경본문은 세번 이상 읽을 것(Read the Bible)
- ③ 성경본문을 검토할 것(Examine the Bible)
- ④ 다시 기도할 것(Say back to God)
- ⑤ 다른 사람과 공부한 내용을 나눌 것(Share with others)

* 묵상에 도움이 되는 개인적 제언*

첫째, 설교나 강의 또는 성경공부 시간에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것.

둘째, 예배시간에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적용까지 묵상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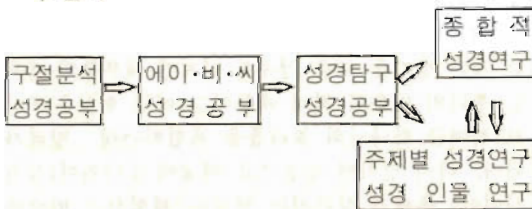
세째, 될수 있으면 강해설교 시간에는 꼭 참석하고 가능한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삼년이상 들을 것. 그 이유는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따라서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네째, 매일 명상의 시간을 갖고 성경공부에는 일주일에 최소한 두 시간 이상을 투자할 것.

다섯째, 성경공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를 구비 활용할 것. 예) 성경사전, 성구사전, 성경지도등.

* 묵상을 통한 개인 성경공부의 몇가지 예*

1) 단계



* 모든 성경공부는 구절분석성경공부를 철저히 한 후에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방법

(1) 구절분석성경공부

(앞에서 설명한 묵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일시 : 1983. 8. 15

○구 절 : 마 6 : 6

○메세지 : ① 기도하느니라(순종할 명령)

②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하나님에 대한 지식)

③ 하나님은 은밀히 보신다(하나님에 대한 지식)

④ 은밀히 기도하면 갚아 주신다(주장할 약속)

○전후문맥

구 절	중심사상
6 : 1	외식에 대한 경고
6 : 2 ~ 4	구제시의 외식
6 : 5 ~ 15	기도시의 외식
6 : 16 ~ 18	금식시의 외식

○문제점 :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용

(문제점은 본문의 내용중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참고할 자료나 목사님 또는 형제들과 함께 연구하여 의문사항 밑에 기입한다.

적용은 Space의 용법을 사용하여 개인적 구체적인 실제 제적으로 기입한다).

(2) 에이·비·씨 성경공부

○일시 :

○본문 :

A. 제목(A Title) :

B. 요절(Best verse or Basic passage)

C. 도전(Challenge)

㉠도전받은 구절 :

㉡도전받은 진리 :

㉢도전에 대한 개인적 적용 :

D. 문제점(Difficulties)

E. 본문분해(Essence)

(A, B항은 맨 나중에 기입한다. E. 본문분해는 본문의 단락을 나누고 그 대지를 간단히 기입한다)

(3) 성경탐구 성경공부법

네비케이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제 10권을 참고할 것.

(4) 기타 성경공부 방법

상당히 복잡한 성경공부 방법들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 다음의 시적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두란노의 주제별 성경연구.

요단출판사의 다이나믹한 성경연구법.

네비케이토의 Bible Study Handbook.

Nave's Topical Bible.

Zondervan's Topical Bible.

* 참고시적*

말티, 헨리슨·평신도 성경해석 지침,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5.

리차드, 와렌·다이나믹한 성경연구법, 서울 : 요단출판사, 1983.

네비케이토·Bible Study Handbook.

KIVF권·Creative Bible Study, 서울 : KIVF, 1983.

Richards, L. G. Creative Bible Study,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me 1981.

을 종라, 성경공부 강의 노트.





해외 선교지·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 인도네시아-서 만수 선교사

- (1)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주 안에서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05명의 어린이가 등록하고, 98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사 18명이 성경, 찬송등 30시간을 가르치며 수고하심.
- (2) 장년 27명과 어린이 6명이 결신하였으며 23명에게 세례를 베풀.
- (3) 중부 자바의 오지에 건축 중인 교회들을 답사하심.

-기도제목-

- (1) 오지교회의 건축이 속히 진행되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결신할 수 있도록

◎ 애굽-이 준교 선교사

- (1) 7월 24일 쇼부라 엘 샤르키아 교회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복음을 증거하심.
- (2) 7월 26일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 사무엘 요셉 목사를 방문, 담화를 나누심.
- (3) 8월 4일, 5일 쇼부라 엘 샤르키아 교회 대학, 청년부 하기 수양회 강사로 수고하심.
- (4) 8월 5일 대림산업 카이로 공사현장의 직원 및 기능공들을 위한 현장 예배를 인도하심.

-기도제목-

- (1) 대림산업 공사 현장에서 수고하는 직원 및 기능공들과 현장 예배를 위하여
- (2) 애굽 현지인의 선교사역, 특히 현지인 사역자를 위하여.

◎ 벨지움-김 성완 선교사

- (1) 벨기에 주재 오. 엠 선교회 책임자인 스티븐씨를 방문하여 선교 전반에 걸친 담화 및 한국인 훈련 참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심.

- (2) '83 암스텔담 대회에 참석, 엘리야 겔간 선교사를 만나 모슬렘 지역의 선교에 관한 여러가지 교제를 가지심.

- (3) 유럽 한인교회 연합 수양회(8월 1일-5일)에 본교회에서 4명이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음.

-기도제목-

- (1) 교회당 구입 및 선교에 관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길
- (2) 한국에서부터 오는 기술연수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 서독-육 호기 선교사

- (1) 8월 1일-5일까지 유럽 교역자 연합회 주최로 최초로 유럽한인교회 연합회 수양회를 지겐(Siegen) 부근인 빌든스도로프(Wilnsdorf)에서 개최하였는데 강사에는 장 옥기 목사(강현교회 담임) 안 요한 목사(새빛 맹인교회 담임)께서 수고하심.
- (2) 8월 9일, 10일 비스바덴 한인교회에서 안 요한 목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가짐.

-기도제목-

- (1) 비스바덴, 뷔츠브룩, 하나우교회의 부흥을 위해,
- (2) 선교 사역에 협력한 동역자를 위해.

◎ 칠레-유 재일 선교사

- (1) 7월 11일 칠레 어린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일 부흥회를 개최, 126명이 참석하여 예배, 찬송을 드림.
- (2) 7월 13일-15일 한인교회의 중·고등부 수양회를 인도하심.
- (3) 7월 21일~25일 제3회 북한선교회 집회가 길자연 목사를 모시고 개최하여 평균 139명이 모인 가운데 은혜 중에 마침.

—기도제목—

- (1) 앞으로의 예배당 건축 추진에 있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도록.

◎ 파라과이 - 김 재창 선교사

- (1) 원주민 10개 교회의 선교사업은 계속 진행 중임.
 (2) 별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나 본당 증축이 무기연기되었음. 이를 위해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3) 9월 6일-11일 칠레의 유 재일 선교사께서 방문, 장로 장립식과 부흥회를 인도함.

—기도제목—

- (1)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많은 부흥을 위해.

◎ 인도 - 엘리야 겔간 선교사

- (1) 뉴욕 빌립보 교회(이 종표 목사 시무)에서 청원한 엘리야 겔간 선교사 후원 사업을 실행위원회에서 인허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임.

—기도제목—

- (1)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 미국

1. 라성충현교회

- (1) 7월 7일부터 9일까지 애로우 헤드에서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각기 하기수양회를 가짐.
 (2) 또한 7월 17일 주일에 제직회를 구성키 위하여 협동장로, 권사, 안수집사등을 임명하고 정식으로 제직회를 구성함.

—기도제목—

- (1) 예배처소 구입을 위해서.
 (2) 정 상우 목사의 수속을 위해서.
 (3) 윤 형철 목사, 김 영희 목사 and 이승근 목사의 목회와 공부를 위해서.

◎ 본부소식

- (1) 본 교회의 후원을 받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털사 지교회 담임목사로 강 성진 목사께서 부임차 선교회 임역원의 환송을 받아 8월 31일 4시에 항공편으로 출국하심.
 (2) 8월 31일 순복음중앙교회의 선교국장이신 이윤화 장로께서 방문, 선교관계의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하여 선교회 교역자와 함께 담화 나누심.

(3) 애굽 주재 이 준교 선교사 가족이 건강진단 및 선교 업무 협의와 보고차 9월 16일 일시 귀국하여 약 1개월간 체류할 예정. 10월 4일에는 애굽 선교보고 및 슬라이드 상영 계획 중.

(4) 서 만수 선교사 부부는 9월 19일 선교협의 방문 및 솔로지역의 인도네시아인 수퍼라토 장로 부부의 한국 및 일본 순방을 안내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 정 영옥 사모는 9월 26일 출국. 서 만수 선교사는 10월 5일 인도네시아 선교보고 후 출국 예정.

(5) 9월 23일에는 서 만수, 이 준교 선교사 외에 유 재일 목사 자당등 일시 귀국 중인 선교사 가족을 모시고 당회장 참석 하에 본선교회 임역원 지도 교역자 및 실행위원과 간담회를 가짐.

- (1) 모든 선교사 내외분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2) 모든 선교사의 사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결실이 있도록.
 (3) 선교지 교회들의 부흥과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 바로 잡습니다.

- p4 상단 30주년→30주년
 p5 좌하13 도하시를→도하시기를
 p14 우상6 기독교의→기독교에
 우하1 그 축복에→그 축복」에
 p15 우상17 법규는→법규를
 우상18 질의→질이
 p16 우하20 최근에→최근
 p17 좌하19 ①말시온적→말시온적
 p18 좌상14 관광을→관광을
 우상2 오후로→오후나
 우상21 고백서」[제221장]→고백서」(제21장)
 우하10 주일성도는→주일성수는
 p19 좌상14 여호와께서→여호와가
 좌상26 천국의 안식의→천국 안식의
 p20 좌하16 (사 1:1)→(사 6:1)
 우상2 (사 1:1)→(사 6:1)
 p21 중상19 (사 1:3)→(사 6:3)
 우상17 (사 1:4)→(사 6:4)
 p29 좌하8 (3) 수족 중인→(3) 수족중인

교회 소식



□ 예배위원회

83년도 제 4 차 성례식 계획

금년도 제4차 성례식을 위하여 학습 및 세례 문답식과 학습을 세우고 세례식을 거행할 일자는 다음과 같다. 초신자로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 이상이 되면 학습을 받고 학습 받은지 6개월 이상이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1) 학습세례문답 :

1983. 10. 27. 오후 4~9시

28. 오후 10~6시

(유아세례문답 오후 1시까지)

2) 유아세례식 :

1983. 10. 28(금) 오후 2시

3) 장년세례식 :

1983. 10. 28(금) 오후 7시

30분

4) 성찬식 :

1983. 10. 30. 주일 1~5부

대예배시



□ 세계선교회

9월 9일 유년부실에서 주교선교부 개강예배가 유국남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예배후, 김주경 전도사의 특강과 테라파이 선교사의 간증이 있었다.



□ 무료의료전도

전도위원회 산하 직장전도회의료부에서는 9월 18일 연안선교회(회장: 최석주 장로)의 전도지인 인천연안부두에서 무료의료 진료 및 전도를 하였다. 이날에 진료한 환자수는 174명이었으며 이날 전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장정일 목사(전도위원장) 이외에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팀은 홍중섭 장로(피부과), 우기진 장로(한 의사), 엄필성 장로(치과), 김중희 집사(외과), 이갑재 집사, 임기채 집사, 정인선 선생, 이해정 선생(이상은 약사), 김정미 선생, 양복순 선생, 마겸순 선생(이상은 간호원) 그리고 최영철 군(연세대의대생)이었으며, 봉사과 전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규복 장로, 송기홍 장로, 최상규 장로, 박치민 장로, 이병학 장로, 이원희 장로, 박영식 집사(직장전도회 회계), 정래부 집사, 유감순 권사, 김진만 권사, 김봉재 권사, 박옥식 권사, 유순녀 권사, 장일준 집사, 조창선 집사 그리고 김형철 집사(운전기사)등, 모두 29명이 참여를 하였다.

□ 교육위원회

9월 24일 새성전에서 주일학교 지도자(지도·부장단) 43명이 모여서 계절학교 종합평가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일차 준비회의가 있었다.

□ 서만수 선교사와 이준교 선교사 잠시 귀국

지난 9월 16일에 이준교 선교사, 9월 19일에는 서만수 선교사가 임시 귀국하여, 9월 25일 주일대예배시, 이준교 선교사는 1·2부 대예배설교를, 서만수 선교사는 3·4부 대예배설교를 하였다.

특히, 3부 예배시에는 서만수 선교사의 선교사업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적으로 뒷바라지하며 크게 도움을 주시던 인도네시아인 장로「마루크스 아궁 수퍼라토」내외분께 충현 세계선교회 총재인 김창인 목사님이 감사패를 전달하는 특별순서가 있었다.



□ 고 손동회 집사 추모예배

9월 1일 쏘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대한항공 보잉 747 비행기의 부기장인 고 손동회 집사의 추모예배를 본 교회당에서 김창인 목사의 인도로 유족과 많은 교우 친지들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되었다. 유족은 부인 유행자 씨와 쌍둥이 자매 은경, 은미양과 장남 재곤군등 4명이다.

□ 충현기도원 집회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예비하고있으라」는 주제로 부흥집회가 열렸다. 강사는 조준상 목사(기도원 담임).

매일 평균 참석 인원은 낮 공부에 200명 저녁 집회는 400명 정도 참석하였다.

□ 성남연합부흥성회

성남청년면려연합회(YCE)의 주최로 성남시 전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연합집회가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성남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강사는 본 교회 당회장인 김창원 목사와 조준상 목사이었고, 주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행 2:42-47)이었다.

매일 평균 참석인원은 낮 공부에 1,500명, 저녁 집회는 4,000명 정도 참석하였다.

제 7 차 하기 전도대 파송 결과보고

파송일자	교 회	교 역 자	주 소	인솔교역자	참가수
7/25~7/29	한 산 제 일	임상선 목사	충남 서천군 한산면 성외리	김동열 목사	5명
8/1 ~8/5	선 양	전영주전도사	강원도 정선군 북면 고암리	허종욱 목사	8 "
8/8 ~8/12	거 아 도	조경란전도사	충남 서산군 남면 거아도섬	허종욱 목사	8 "
"	학 동	김원영 목사	경북 경산군 외촌면 강학동	이원길 목사	7 "
"	다 문	정원옥 목사	경북 경산군 진량면 다문동	김동열 목사	6 "
"	미 죽	전인권 목사	충남 천원군 풍세면 미죽리	김성주전도사	5 "
"	가 배	문귀석 목사	경남 거제군 동부면 가배리	유국남 목사	7 "
"	구 림	최복수전도사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이상환전도사	10 "
"	미 산	정광현전도사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울치리	김익경전도사	11 "
8/9 ~8/12	두 문	안병무 목사	충남 서천군 기산면 두문리	김오용전도사	5 "
8/16~8/20	신 현	김영기 목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신월1리	하영자전도사	5 "

□ 인사이동

교사

① 임명

장재부 : 조종원 (여) 임시교사

성가대

① 임명

제 3 성가대 : 김혜경 (소프라노)

김성주 (엘토)

곽영복 (베이스)

강선호 (베이스)

② 퇴임

제 3 성가대 : 한광옥 (엘토)

정미숙 (엘토)

백남익 (베이스)

호세아 6장 1절~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옴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각종통계 (1983. 9. 4. 매월 첫 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 배	주 일 낮	I 부	198	353	551	총 세대수	4,624	
		II 부	569	1,144	1,713			
		III 부	438	784	1,222			
		IV 부	174	445	619			
		V 부	170	396	566			
	주 일 저 녀	221	442	663				
	삼 일 저 녀	163	396	559				
주 일 학 교	어린이새신자부	3	4	7	신 급 별 교 인 현 황	교 인 총 수	남	4,541
				여			6,383	
				계			10,924	
	영 아 부	227	195	422		세 려 입 교	남	2,464
	유 치 부	165	186	351			여	3,884
	유 년 부	192	190	382			계	6,348
	초 등 부	247	224	471		유 아 세 려	남	594
	중 등 부	192	181	373			여	493
	고 등 부	134	154	288			계	1,087
	대 학 부	57	73	130		학 습 교 인	남	300
	청 년 부	59	84	143			여	432
	장 새 부	44	125	169			계	732
	새 려 부	24	64	88		원 입 교 인	남	1,183
	장 년 부	35	271	306			여	1,574
	소 망 부	50	181	231			계	2,757
	직 장 청소년부	25	99	124				
	선 교 부	방 학 중						
	새 가 정 부	20	30	50				
	합 계	3,407	6,021	9,428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4,25)

9월의 교우동정

○ 1지구

행당2구역 김대련
잠실1-2구역 조군실
지왕2-1구역 정영숙
면목4구역 오명문
왕십리2구역 이명순
금호3-1구역 최영규
금호3-1구역 고미양
금호3-2구역 김희종
충곡4구역 이기래
시성 구역 김휘립
지왕2-3구역 송영자
청량리구역 백남진
전호2구역 윤도성

○ 2지구

미아5-1구역 최점예
신당4-1구역 차정화
미아8구역 오태환
신당2-5구역 김월자
광희1-1구역 정경숙
삼일A구역 송덕희
쌍림2구역 최병호
문마1구역 김우현
청당2구역 김성용
돈암1구역 최향태

○ 3지구

장충7구역 김익진
동송 구역 손충복

○ 4지구

역삼1구역 이양철
화곡3구역 노희일
화곡3구역 신병천
화곡3구역 김혜숙
오장5구역 이종연
진달래구역 윤영자
양재 구역 김용기
양재 구역 백경우

○ 5지구

사당3구역 고경인
남창 구역 최윤영
회현 구역 살순복
서초삼호구역김용환
신림3-4구역 김재운
과천2구역 김 현



결 혼

● 안용철군(안원보씨 김석윤집사 장남)
과 최유경양 8월 23일

- 고인환군(이정희권사 아들)과 김평옥 양 8월 23일
- 강국해군(강중심씨 전인회권사 아들)과 임향자양 8월 25일
- 이원영군과 이은주양(이현탁장로 이현노권사 딸) 8월27일
- 송진국군(성내동구역)과 노화선양(화곡구역) 9월 10일
- 양인환군(서대문구역)과 박보경양(제일성가대원) 9월 13일
- 이석주군과 주선옥양(주원홍씨 김복임집사 딸) 9월 17일
- 변준현군(변정국씨 한경옥권사 아들) 9월 16일
- 여중호군(웅당구역)과 전유숙양(전위덕씨 이수자권사 딸) 9월 27일
- 이종환군과 정미숙양(정인옥씨 유감순권사 딸) 9월 27일
- 임병일군(황규선권사 아들)과 조경순 양(동송구역) 9월 29일

별 세

- 김금록씨(김준자씨 부군) 8월 16일
- 신평순씨(김태수씨 모친) 8월 27일
- 신상덕씨(무지개구역) 9월 10일
- 박혜영씨(행당2구역) 9월 11일
- 김정숙권사(안익태장로 모친) 9월 18일
- 한길수집사(목동구역) 9월 21일

새로 나온 교우는

*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 「학습」을 받으신 사람은 세례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집회시간은 12시이며 장소는 새신자부실에서, 세례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10월의 행사

◇ 재정위원회

2 일 / 재정위원회 월례회

◇ 건축위원회

23일 / 건축위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23일 / 교육위원회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16일 / 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 심방위원회

2 일 / 정기세직회

9 일 / 권사회 임원회

16일 / 권사회 월례회

23일 / 구역권찰회의

◇ 교회

30일 / 정기당회

7 일 / 전체철야기도회

◇ 전도위원회

1 일 / 직장전도회 조찬기도회
및 월례회

7 일 / 여전도회 월례회

9 일 / 남전도회 월례회

직장전도회 월례회

23일 / 전도위원회 월례회

◇ 출판국

9 일 / 월간 충현 10월호 발행

16일 / 출판국 월례회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 / 윤 명 식

편집위원 /

이 성 근 이 세 열

윤 영 탁 안 석 렬

김 영 구 조 현 명

김 차 생 우 기 전

이 훈 정 은 표

오 태 용 이 형 수

1983년 10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10월호

제11권 제9호

통권 114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3년 10월 5일 인쇄

1983년 10월 8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윤 명 식

주 간 / 김 영 구

편집부장 / 문 영 화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1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 / 274-2171·2172

편집후기

◎ 무조건 비판을 잘하고 독선적인 친구가 국회의원에 출마하자 그를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만류하며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당선되면 나라가 시끄럽고, 자네가 떨어지면 자네 집안이 망하니, 그만 두게나” 라고.

주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강하게 나타나거나 대책이 없는 비판을 가할 때에, 나타나는 것은 불협화음과 더스럽지 못한 일들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주님의 말씀에 비추인 언행심사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나 날마다 내게 부딪히는 것은 「나」였고 그래서 주를 앙모하게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나」였다.

◎ 이번 호의 「종교개혁 기념특집」은 장로교의 바른 신앙의 정통성을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금 일깨우는 귀중한 내용들이어서, 편집하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사명감을 더욱 느꼈다.



서만수 선교사와 아궁 슈퍼라트 장로 내외



충현기도원 집회(9. 26~30)



무료의료 전도단(인천 연안)



무료의료 전도단(인천 연안)

풍요론 계절의 감사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다
겨우내 쉬던 푸르름은
봄의 햇살을 받아 대지에서 빛난다
자, 다시 따스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론 씨앗을 뿌려보자

무성한 여름
우거진 숲의 푸르름 속에서
태양에 항거하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숲을 가득 채웠다
새는 자유로이 햇살을 가로질러 나가고
흰 구름은 가만히 저 창공을 수놓는다
농부들의 이마에 맺힌
땀의 결실은
결코 헛되지 않을 듯,
주님은 빗방울로 소리없이
대지를
그리고, 푹푹한 이삭을 가만히 적셔주신다

아침이슬은 영롱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더없이 감미로운 가을
국화향기 그윽한 저녁길
어두움도 아랑곳 않고
단을 베는 농부들의 손길은 풍요롭기만 하다
황금빛으로 곱게 물들어
소리없이 바람에 흔들리어
가만히 고개숙인
황금이삭의 그 자태는
자못 수줍어 아름답고
석양노을에 가만히 빛난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
뜨거운 태양을 무색케 하던
농부들의 수고는
이 풍요론 계절
그 열매를 맛보았다
가을의 이 풍요롭과 풍성함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결실인게다

풍성함을 주신 주님께
소리없는 감사를 가만히 올려드린다...

